두산, 독일 NovaLED 인수 검토

두산(대표 박용만·이재경)이 독일의 디스플레이 생산기업 NovaLED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은 3월20일 NovaLED 인수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NovaLED 인수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제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화학저널 2013/03/20>